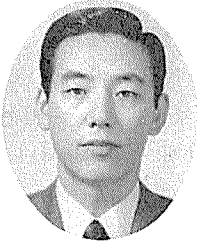


OPEC會議結果에 따른 우리나라의 影響



尹 秀 吉
〈動力資源部 石油調整官〉

1. 第60次 OPEC會議結果

(1) 最近의 原油需給 및 價格動向

78년말의 이란사태로부터 비롯되었던 第2次 石油波動은 세계原油需給市場에서의 갑작스러운 物量不足사태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선진국들의 물량확보불안에 따른 備蓄原油購賣러시는 原油價를 불과 2년만에 3배이상 인상시키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2차 석유위기에 따른 선진국들의 경기침체와 적극적인 消費節約運動의 전개 및 代替에너지의 개발연구는 油類消費를 대폭 縮少시킴으로써 최근에 와서는 세계원유 시장에서, 오히려 하루 약 2백~3백만배럴의 原油가 남아 돌아가는 상황으로 변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現物市場에서의 原油價格은 公示價格을 밑도는 수준으로 하락하는 경우마저 생기게 되었고, 產油國에서도 自國의 原油價를 인하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지난 5월25, 26일 양일간에 걸쳐 스위스의 제비바에서 개최되었던 제60차 OPEC會議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급격한 原油價引上決定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였다.

(2) 會議의 經過

전문가들이 사전에 예측했던 바와같이, 일부 產

油國들은 현행 사우디의 基準原油價를 배럴당 32달러에서 배럴당 34달러로 인상함과 동시에 현재 하루 1천30만배럴의 產油量을 대폭 減産하도록 사우디에 요구하였으나, 사우디는 各產油國別로 多元化되어있는 현재의 原油價가 單一 油價體制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사우디의 原油價를 인상하지 않을 뿐더러 產油量도 減産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결국 原油價의 引上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하였던 것이다.

(3) 會議 結果 및 合意 事項

5월26일 第60次 OPEC會議의 閉幕聲明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次期 OPEC議長에 현 수브로토 인도네시아 鑛物에너지相을 留任시키고, 交替議長에 말람 야하야 디코 나이지리아 대통령 石油 및 에너지담당 특별보좌관을 임명함.

② 長期戰略案은 사우디의 야마니 石油相이 위원장인 위원회에서 재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보고서를 總會에 제출토록 함.

③ 현재의 市場狀況을 고려하여 금년말까지 OPEC 基準原油價格을 배럴당 36달러로 하고 OPEC 最高原油價格을 배럴당 41달러로 유지하기로 결정.

④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81년 6월 1일부터 最小限 10% 減産을 실시하기로 결정.

⑤ 事務總長에 가봉의 앙구에마 박사를 81년 7월 1일부터 2년간 임명.

□ 特 輯 : 10% 原油減産, 그 다음에는 ?

⑥ 파드힐 J·알 찰라비 현 事務次長의 임기를 81년 10월 7일부터 3년간 연장.

⑦ 次期 OPEC 總會는 81년 12월 10일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에서 개최.

⑧ 이 會議에서의 決定事項은 각 會員國의 비준을 받아 81년 6월 26일 公表.

여기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上記 합의사항중 第3項의 原油價格에 관한 합의 및 第4項의 産油量에 관한 결정이다. 특히 제4항의 産油量에 관한 결정은 OPEC를 현재의 價格카르텔에서 物量카르텔의 性格까지를 加味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점에서 특별한 注意와 관심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2. OPEC會議結果에 따른 우리나라의 影響

(1) 原油需給上的 影響

제60차 OPEC會議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6월 1일부터 最少限 10% 정도의 原油生産量を 減縮시키도록 함에 따라 사우디, 이란, 이라크등을 제외한 産油國들은 減産을 실시할 것으로 보여지나 최근까지 減産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국가는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등 수개국에 불과한 실정이며 기타 産油國의 減産時期 및 物量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각산유국들이 減産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당장에는 國際原油市場에서의 供給過剩狀態가 해소될 것으로는 보여 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재의 국제원유시장에서의 過剩供給物량은 하루 2백~3백만 배럴에 이르고 있으나 사우디, 이란, 이라크를 제외한 殘餘國家가 모두 10%의 減産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物량은 하루 1백20~1백50만 배럴에 불과하여 減産후에도 다소간의 供給 過剩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란, 이라크 전쟁의 再發등 돌발적인 사태변화가 없는 한 일시적으로는 供給過剩의 상태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長期的으로 보아 石油은 그 자체가 有限資源일 뿐만 아니라 先進國의 景氣回復에 따른

需要增大등으로 物量供給不足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는 데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消費節約, 代替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源의 多元化 문제는 계속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短期的으로는 物量確保上の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長期的으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또다시 에너지문제가 우리경제발전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2) 國內油價에 미치는 影響

가. 最近의 原油價格 變動推移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原油價는 79년 이후 약 3배 이상으로 暴騰하였다. 79년 이후 현재까지의 原油價동향을 살펴보면 原油價格은 산유국의 정책에 따라 크게 세가지의 範疇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첫째는 현재 原油價를 배럴당 32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온전파산유국, 둘째는 배럴당 4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강경파산유국과 세계는 上記 兩者의 중간선인 배럴당 36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중도파산유국이 바로 그것이다.

〈表 1〉 各國의 原油價 變動推移

(FOB \$/B : 공식가격기준)

국 별	유 증	81년 1월	81년 4월	81년 5월
멕시코	Maya	40.35	32.00	32.00
에콰도르	Oliente	38.00	36.00	34.50
이집트	Suez Blend	40.50	37.50	36.00
오만	Oman	39.50	38.50	38.50

특히 일부 産油國은 배럴당 36달러 수준의 公示價格을 유지하면서 高額의 프리미엄이나 할증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原油價를 引上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物量供給 過剩현상에 따라 現物市場에서의 原油價格이 계속 하락하게 되자 대부분의 강경파산유국들은 프리미엄이나 할증금을 引下내지는 철폐하기에 이르렀으며 심지어는 公示價格자체를 引下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가 배럴당 4 달러, 에콰도르가 배럴당 5 달러, 쿠웨이트가 배럴당 3 달러씩 각각 原油價를 引下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외에도 많은 國家들이 原油價를 引下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가 도입하고 있는 原油價格도 당분간은 급격한 引上이 없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하고 있다.

나. 最近의 原油價變動에 따른 國內油價影響

① 國內原油導入價格의 變動

우리나라의 原油導入先을 살펴보면 약60%를 사우디에서 도입하는 등 소요원유의 대부분을 온건파산유국으로부터 도입하고 있다. 때문에 원유도입평균가격을 보면 우리나라의 原油導入價格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81년 3월 현재의 국내원유도입평균가격은 FOB기준으로 배럴당 34.77달러 이었다.

따라서 최근 高原油價政策을 채택하고 있는 강경파산유국의 原油價 引下현상은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原油의 平均價格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강경파산유국으로부터의 原油導入량이 극히 적은 규모이기 때문이다. 지난 5월현재의 우리나라 원유도입평균가격은 배럴당 34.65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지난 3월의 배럴당 34.77달러에 비해서 불과 0.3%에 해당하는 배럴당 0.12달러만이 인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上述한 바와 같은 원인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② 國內油價의 引下問題

최근의 산유국의 原油價 引下보도에 따라 國內油價의 引下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바 이를 검토하기 위해 우선 國內油價決定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國內油價의 決定方法〉

國內油價는 이미 모든사람들이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原油代關聯費用×換率」과 「精製費+利潤」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원유대관련비용에는 FOB, 원유수송비, 방위세 및 기타부

대비와 定額安定基金(현재 배럴당 3.50달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FOB는 低價原油導入精油社의 원유도입평균가격을 基準原油價로 하여 유가에 반영하고(현재 배럴당 31.44달러:사우디 原油의 도입평균가격임) 實導入原油價格이 상기 기준원유가보다 높을 때는 그 高價差額을 定額安定基金에서 補填해 주는 原油價 平準化制度를 채택하고 있다. 단 국내의 모든 精油會社는 원칙적으로는 똑같은 가격인 배럴당 31.44달러로 原油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우디를 제외한 기타 산유국의 원유가인상에 따른 국내원유도입가격의 인하는 기준원유가(배럴당 31.44달러)를 인하시키게 되는 것이 아니라 定額安定基金(배럴당 3.50달러)으로부터의 高價差額 補填所要를 축소시킴으로써, 결국 定額安定基金의 引下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原油價引下에 의해 국내원유도입평균가격이 배럴당 0.12달러 인하됨에 따른 高價差額補填所要 감소로 여건의 변화가 없는한 安定基金收支上 연간 약 1백10억원 정도 好轉될 것으로 예상된다.

〈國內油價引下의 問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근의 원유가인하에 따라 국내원유도입 평균가격이 배럴당0.12달러 인하되어 0.3%정도의 油價引下要因이 발생하였으나, 반면 換率은 지난 4.19油價調整時 기준하였던 환율 1달러당 677.80원보다 1.36%나 上昇한 달러당 687.00원(81.6.5 현재)에 이르고 있어 결국 國內油價는 原油價引下에 따른 引下 요인보다 換率上昇에 따른 引上요인이 커지게 되었으며, 따라서 현시점까지의 結果만 볼 때에는 原油價의 引下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國內油價를 약0.9%정도 上昇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③ 앞으로의 展望

최근의 추세로 보아 당분간은 價格 및 需給면에서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次期 OPEC會議가 81년 12월10일 열리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회의를 앞두고 각 회원국들이 어떠한 형태로 대응할 것인지는 예측하기

□特 輯：10%原油減産， 그 다음에는？

어렵다. 다만 그 당시의 需給狀況如何에 따라 原油價가 또다시 引上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유도입선인 사우디도 原油價의 一元化를 위해 尙經과 산유국의 原油價引下를 조건으로 自國의 原油價를 引上시킬지도 모른다.

아 물론 정부로서는 5%이상의 引上要因발생시

適期에 油價를 調整할 것임을 누차에 걸쳐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原油價引上이 있을 경우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 나아갈 것이며 反對로 引下要因이 발생할 경우에도 그 引下幅, 換率의 움직임, 原油價 引下의 時限性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나아갈 것이다. *

〈表2〉 各國의 原油導入 價格 比較

區 分	韓 國	西 獨	日 本	台 灣
原 油 導 入 量 (千B/D)	500 ('80)	2,236 ('79)	4,473 ('80)	367 ('79)
原油의輸入依存度	100%	95.9% ('77)	99.8% ('78)	98.7% ('79)
原 油 輸 入 單 價 (80. 1 ~ 6) FOB	27.84 \$/B	33.17 \$/B (推定)	31.28 \$/B	28.01 \$/B

省에너지型 經濟成長이 定着되어가는 先進國

脫石油과 석유절약의 진전에 따라 선진국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石油의 기여도가 점차 저하되고 있다.

日本 通産省·資源에너지庁의 試算에 따르면, 80년도의 GNP(國民總生産) 1 억円을 생산하는데 소비한 石油量(石油原單位)은 제 1 차 석유 위기가 발생했던 73년에 비해 거의 3분의 2 수준인 2 백24kl로 과거 15년 동안의 최저기록을 나타냈으며, 오는 85년에는 1 백98kl 까지 저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日本이 2 차례의 석유위기를 거치는 동안 脫石油를 촉진시킨 결과로서 「省에너지型 經濟成長」이 정착해 가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石油原單位는 石油소비량을 實質GNP (80년 가격)로 나눈 것으로서 실질GNP 1 억円당 석유소비량을 말한다. 日本은 석유를 거의 全量 輸入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석유수입량을

사용해서 계산했는데, 原單位는 65년 2 백52 kl 이후 年평균 4 %씩 계속 상승, 제 1 차 석유 위기가 발생했던 73년에 3 백46kl로 피크를 이루었다. 이는 그 동안 日本이 石油多消費型의 重化學工業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 후 原油가격의 상승을 반영하여 原單位도 저하, 78년 2 백70kl, 79년 2 백64kl로 감소했고, 80년에는 前年에 비해 15%가 감소한 2 백24kl로 과거 15년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美國은 80년에 실질경제성장율이 마이너스 0.2%를 기록한데 대해 석유소비는 前年比 7.3% 감소했고, 西獨은 1.8% 성장에 대해 12.1% 감소, 프랑스는 1.8% 성장에 대해 6.7% 감소, 이탈리아는 4% 성장에 석유소비가 0.8% 감소하는 등 각국이 성장율에 비해 석유 소비가 크게 감소했다. *